ABEEK NEWS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2014
Sep 2014

글로벌 공학인재양성 공인원이 함께 합니다.

공지사항
인증기준 2015 제정

Main News
2014년도 인증평의회 개최

ABEEK 소식
제41회 공학교육인증포럼 개최
2014년도 하반기 채용설명회 개최
IEA Midterm Meetings 참가
Seoul Accord Workshop and Midterm Meeting 참가
임시 이사회 개최
제7회 공학설계교육워크숍 개최
동부대우전자/SK브로드밴드와 MOU 체결
대한기계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참가 및 후원
NCS 기반 교육과정 평가 및 질 관리 방안 간담회 개최
LS그룹&한국공학교육인증원 MOU 체결

취업뉴스
[한국경제] [김효석 대표 Q&A] 면접 스피치, 취업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위키트리] LG계열사 인사담당자가 밝힌 '하반기 공채 준비 노하우'

공학교육혁신센터 탐방 '경북대학교'

공학교육인증우대기업 탐방 '휴맥스'

인증기준 2015 제정

제정배경

◆ **인증기준 제정을 통한 인증평가 방향 전환**

– 졸업생의 국제적 동등성 보장을 위한 학습성과 중심의 인증평가제도 개발

– 학습성과 중심의 Holistic한 공학교육인증평가 도입

– 교과목을 통한 학습성과 평가가 가능한 공학교육인증평가 도입

◆ **국제 교육어코드 요건 만족**

– 워싱턴어코드 Graduate Attributes 내용 반영

– 문제 수준에 따른 문제수준설명(레벨디스크립터) 설정

◆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관 인정기관 지정에 따른 이행권고사항 실행**

제정방향

◆ **간소화**

– 기준 4, 5, 6의 세부평가항목 축소

– 교육목표 성취도 측정, 학생 상담과 관찰 등의 통폐합

◆ **정량적 이수학점 요건**

– 교육 품질보장을 위한 담보로 최소한의 정량적 이수학점 요건을 정하되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

– 전문교양 영역 최소이수 학점 요건 삭제

◆ **교과목 학습성과 평가**

– Course Embedded Assessment를 통한 학습성과 평가를 교육기관이 점진적으로 반영토록 추진

◆ **국제 교육어코드 요건 만족**

– 워싱턴어코드의 Graduate Attributes 내용을 프로그램 학습성과
내용에 추가하고 프로그램 학습성과 내용을 12개에서 10개로 정리

- Investigation(연구조사)
- Project Management(프로젝트 관리)
-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환경 및 지속가능성)

– 문제수준을 문제수준설명(레벨디스크립터)으로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용어집에 추가

현행 평가의 문제점 개선 보완 방향

현행 평가	개선 방향
· 학생에게 제공된 교육내용과 독립적인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	· course-embedded assessment 도입 등을 통하여 학습성과와 교과과정과의 연계 강화 ·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 학생에게 제공된 교육의 품질과 이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성취도를 중점적으로 평가
·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평가보다는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체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평가를 수행하는 행정체계를 중점적으로 평가	· 학습성과 성취도 평가 근거자료의 타당성 검토에 집중하고 평가체계 및 절차는 프로그램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함
· 평가 결과의 타당성보다는 일관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춤	· 문제수준설명(레벨 디스크립터) 등을 도입하여 평가 결과의 타당성 제고
·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CQI와 이전 평가에서 지적된 부족사항 해소의 구분이 불분명 · 학생관찰 등 모호한 개념 사용	· 7.1삭제, 기준 7의 프로그램 CQI 및 부족사항 해소는 인증절차에서 해결 · 학생관찰 등 통폐합

※ 인증기준 KEC 2015, KCC 2015, KTC 2015 세부내용은 공인원 홈페이지 참조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 김영길입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2013년 1월 정부로부터 공학분야 평가 · 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2의 도약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은 공인원이 공학교육의 개선과 세계화를 위해 15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또한 2007년 6월 워싱턴 어코드의 정회원으로 가입된 이래, 2008년 12월 서울 어코드에 이어 2013년 6월 시드니/더블린 어코드의 정회원으로 가입됨에 따라 공인원은 미국 ABET과 더불어 세계 최초로 4대 공학교육인증기구 동시 가입이라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인원은 정부 인정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공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평가 · 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입니다. 공인원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김영길 원장

2014년도 인증평의회 개최

〈2014년도 인증평의회〉

공인원은 지난 1년 동안 공학전문학회, 공학한림원, 공과대학, 산업체 등 공학관련 커뮤니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증기준 KEC2015, KCC2015, KTC2015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번 제정된 인증기준은 '졸업생의 국제적 동등성 보장을 위한 학습성과 중심의 인증평가제도 개발' 및 '학습성과 중심의 Holistic한 공학교육인증평가 도입' 그리고 '교과목을 통한 학습성과 중심의 교육 및 평가체계 확립'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인증기준2015(안)에 대한 심의 • 의결을 위해 공학교육인증평의회(KEC2015) 및 컴퓨터 • 정보(공)학교육인증평의회(KCC2015), 공학기술교육인증평의회(KTC2015)가 지난 6월 28일 개최되었으며, 각 인증사업단(KEC, KCC, KTC) 단장이 간사, 공인원 수석부원장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관하였다. 각 인증평의회는 새롭게 제정되는 인증기준(KEC/KCC /KTC)2015(안)과 각각의 평가판정가이드를 심의 • 의결하였다. 인증평의회를 통과한 인증기준2015(안)은 7월 15일 개최된 임시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 · 승인되었다.

제41회 공학교육인증포럼 개최

제41회 공학교육인증포럼이 6월 26일(목)에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공인원 김성조 수석부원장, 송동주 부원장을 비롯하여 공학교육인증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교수 및 연구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서울과기대 제품설계금형심화 프로그램 인증운영 사례, 영남대학교 컴퓨터공학심화 프로그램 교과기반 평가 운영 사례, QFD를 이용한 CEA 교육과정 설계방안, 공학교육인증평가의 단계별 과정 분석 등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공인원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공학교육인증포럼은 공학교육인증과 관련된 여러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더 나은 공학교육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되고 있으며, 공학교육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교수 및 전국 대학의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연구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2014년도 하반기 공학교육인증우대기업 채용설명회 개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2014년 7월1일(화)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14년도 하반기 공학교육인증우대기업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공과대학에서 학생/교수/교직원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동부제철/휴맥스/SK하이닉스/만도/LG전자/두산인프라코어/KCC/SK텔레콤 등 9개 기업체가 참여하여 2014년 하반기 채용정보와 공학교육인증우대사항, 인재상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김성조 수석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학교육인증제도가 요구하는 어려운 과정을 이수했다는 자부심과 인증프로그램 학생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간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학업에 더욱 정진하여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엔지니어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을 졸업한 학생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140여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학교육인증이수자가 취업 시 가산점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체뿐만 아니라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학교육인증 우대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IEA Midterm Meetings 참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6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된 IEA (International Engineering Alliance) Midterm Meetings에 참석했다.

IEA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공학분야 6개 국제협약체(Washington Accord, Sydney Accord, Dublin Accord, APEC Engineer Agreement, International Professional Engineers Agreement, International Engineering Technologist Agreement)의 연합체로 2년 주기로 총회와 중간 워크숍 및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의결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25개국 130여명이 참석하여 스리랑카, 인도의 워싱턴어코드 회원 가입여부 등을 결정했으며, 공인원에서는 김정수 부원장과 최기흥 국제위원장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Seoul Accord Workshop and Midterm Meeting 참가

6월 13일(금)부터 15(일) 일까지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된 Seoul Accord Workshop and Midterm Meeting에 김지인 서울어코드 위원장, 김정수 부원장, 최기흥 국제위원장 등 공인원 운영위원 총 6명이 참석했다.

서울어코드는 컴퓨터 • 정보기술 분야 교육프로그램의 상호인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다자간 협약체로 우리나라 주도로 2008년 12월 6일 공식적으로 발족되었으며, 2년 주기로 총회와 중간 워크숍 및 회의를 번갈아 개최하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의결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6개 워크숍이 진행된 가운데 Out of Jurisdiction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되었다.

임시 이사회 개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지난 7월 15일(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새로 제정된 인증기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윤종용 이사장을 포함한 공인원 이사 22명(위임장 포함)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고안건으로 제30차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의결안건으로는 인증기준 KEC, KCC, KTC 2015 제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 및 공인원 부원장 신규 선임(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진행되었고 상정한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의, 승인 처리되었다.

제7회 공학설계교육워크숍 개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7월 23일(수)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7회 공학설계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SAP Korea Ltd. 한병욱 전무, 공인원 송동주 부원장을 비롯하여 공학계열 대학 교수 및 연구원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순서에서는 "Creating Innovation and Innovators: Experience from Stanford and SAP"라는 주제로 한병욱 전무의 기조연설이 진행되었고, "Introduction of Design Thinking: Reframing Problems into Opportunities"를 주제로 송동주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오후 순서에서는 "프로세스기반의 기초창의 공학설계 과제 훈련에 대한 사례"라는 주제로 경북대 정원일 교수의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화학공학 종합설계 운영사례"라는 제목으로 경상대 김창준 교수의 주제발표가, "신소재 공학 분야 특허기반 공학설계 교과 운영 사례"라는 주제로 동아대 김재일 교수가 주제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Design-Centric Biomedical Engineering Program at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를 주제로 싱가폴국립대의 김상호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여 공학설계분야의 국내 • 외의 사례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EAC 부단장인 이원 교수가 "설계교육 관련 인증기준 설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워크숍이 마무리 되었다.

공인원에서는 공학설계교육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고 설계교육 내실화를 통한 공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공학설계교육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동부대우전자/SK브로드밴드와 MOU 체결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7월 14일(월)과 7월 29일(화)에 각각 동부대우전자, SK브로드밴드와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향후 동부대우전자와 SK브로드밴드 신입사원 채용 시 인증프로그램 졸업생에 대해 서류전형에서 우대하기로 하였으며, 입사지원서 양식에 인증졸업여부를 체크하는 란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동부대우전자는 1987년 대우모터공업 설립 이래 글로벌 가전전문회사로 성장했으며, 2013년 2월 동부그룹의 일원이 되면서 첨단 종합전자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사업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고효율 · 친환경 · 스마트 가전분야로 제품을 고도화하고, 의료기기, 사무용기기, 주방기기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1997년 하나로통신으로 시작하여 2008년 지금의 SK브로드밴드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초기 음성 위주의 사업영역을 초고속 데이터통신, 영상전화, TV포털 서비스 등으로 확장해왔으며, 앞으로 유무선, 방통융합 등 다양한 컨버전스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한기계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참가 및 후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2014년 6월 26일(목)~27일(금) 2일간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된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공인원 송동주 부원장은 인증 우수사례 세션에서 공학교육혁신의 4C구현 거점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실시했으며, 이희원 인증사업본부장은 공학교육 동향 세션에서 ABEEK 인증기준 KEC2015 제정(안) 소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실시했다.

NCS 기반 교육과정 평가 및 질 관리 방안 간담회 개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7월 25일(금) 공인원 대회의실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 평가 및 질 관리 방안 간담회 개최'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담당처 단장, 공학기술교육인증학과 PD교수,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1부 순서에서는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에서 교육의 질 개선과 학문분야별 프로그램 인증 결과의 연계방안, 특성화 전문대학 공학계 학과의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특성화 전문대학 공학계 학과의 NCS 기반 교육과정 평가 및 질 관리 라는 주제로 윤여송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장, 이호웅 공기위 위원, 김영우 공기위 부위원장이 각각 발표하였다.

2부 순서에는 NCS 직무능력 달성도 평가와 졸업생역량 평가체계 비교, 공학기술교육인증과 NCS 기반 교육과정의 교과기반평가(CEA), KTC2015 인증기준 개정안 설명 을 서용환 ETAC부단장, 이재용 ETAC부단장, 윤천근 ETAC단장이 발표하였다.

LS그룹&한국공학교육인증원 MOU 체결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9월 3일(목) LS그룹과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LS그룹 계열사의 신입사원 채용 시 인증프로그램 졸업생에 대해 서류전형에서 우대하기로 하였으며, 입사지원서 양식에 인증졸업여부를 체크하는 란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LS그룹은 대한민국 재계 순위 9위(2013년 4월 매출 기준)의 대기업으로 2003년 LG그룹에서 전선과 금속부문이 분리 · 독립하여 출범하였으며, 지주회사인 ㈜LS를 중심으로 LS글로벌, LS대성전자, LS전선, LS산전, LS-Nikko동제련, LS엠트론, 가온전선, E1, 예스코 등 9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동의과학대학교 신소재응용화학과 김종천(S-OIL 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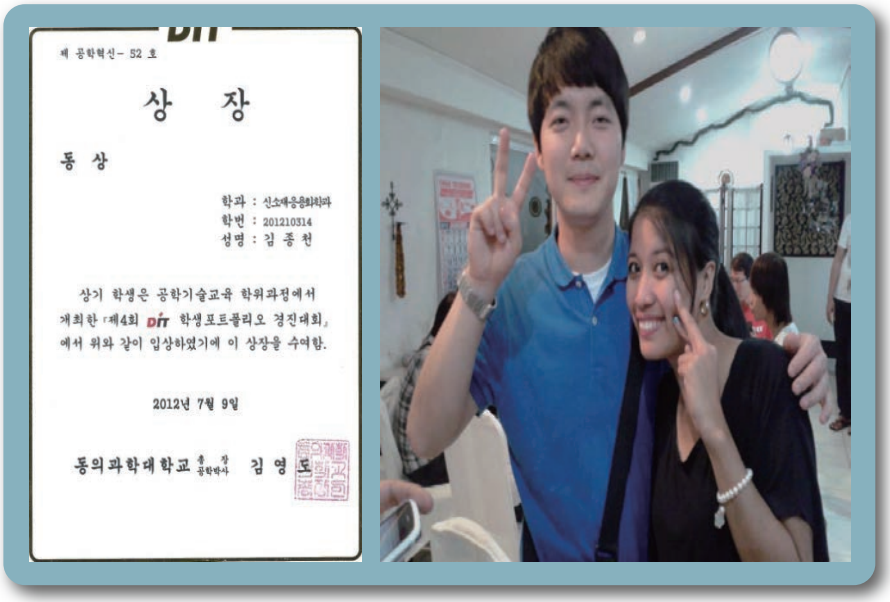
공학기술교육 포트폴리오경진대회에 도전하여 성취감을 맛보면서 제 대학생활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는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 공고를 보고 포트폴리오 가이드북을 찾아보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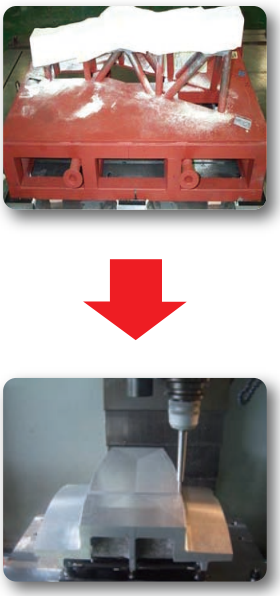
학기 별 학습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과목별 학습내용을 포트폴리오에 정리하면서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였고 자격증 및 영어 성적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로, 적성 부문을 채우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정유 및 석유화학 제조업)에 대해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어학연수, 이수화학 현장실습, 창업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은 이후에 취업 면접에서도 큰 강점이 되었고 면접관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공학교육인증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제가 속한 조는 자동차 검사구 재료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합성수지를 대체하는 재료로 알루미늄을 찾게 되었고 경제성이나 적합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신소재응용화학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조원들과의 협동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공학교육인증을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공학교육인증을 이수하게 되면 공업기술전문학사가 아니 화학공업기술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학교육인증 이수를 통해 학교 생활과 취업활동에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덕분에 지금은 그토록 가고 싶던 S-OIL에 입사하여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후배님들도 공학교육인증과정을 통해 도전 정신을 키우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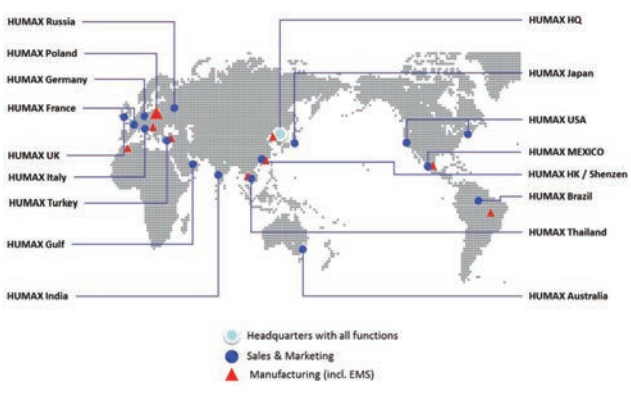
1989년 창업한 휴맥스(당시 건인시스템)는 변대규 사장이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연구실 동료, 후배 6명과 의기투합하여 설립한 회사로 대한민국 벤처 1세대로서 '벤처신화'를 대표하는 회사다.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서울대 캠퍼스 근처의 손바닥만한 사무실에서 보잘것없이 시작했지만, 현재 세계 셋톱박스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휴맥스는 국내에서 벤처기업으로 출발하여 국내시장이 아닌 글로벌시장을 기반으로 큰 성공을 일구어 낸 거의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다.

한국의 상당수 벤처기업들이 국내시장이나 혹은 해외시장이라 하더라도 일부지역에 편중해 사업을 전개했던 것과 달리 일찌감치 세계시장을 겨냥하여 글로벌시장을 기반으로 성공을 일궈내면서 '한국 벤처도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20~30년 동안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창업하여 글로벌시장을 무대로 경쟁하여 성공을 거둔 기업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돋보이는 대목이다.

휴맥스는 89년 창업 이래 디지털기술 분야에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96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세계에서 3번째로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용 셋톱박스 개발에 성공, 현재 세계 셋톱박스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로 발돋움했다. '2000년 유럽의 일반 유통시장을 석권한 데 이어, 중동시장에서도 대표브랜드로 올라섰으며, 이후 미국, 일본, 신흥국가 등 전세계 시장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영국향 IP-Hybrid 셋톱박스〉



〈휴맥스 Global Network〉

〈분당 수내동에 위치한 휴맥스빌리지〉

창업 첫 해인 '89년 1억 2,500만원이었던 매출은 2008년 7,819억 원, 2009년 8,027억원으로 성장하며 창업 20여 년 만에 6,000배가 넘는 기록적인 성장을 했으며, 급기야 창업 21년만인 2010년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그 사이 직원수도 11명에서 713명으로 늘었다.(2013년 매출 1조 1,394억원, 직원수 938명)

97년 영국시장에 진출한 이래 공격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온 휴맥스는 현재 중동(99년), 독일 · 미국(00년), 일본(01년), 인도(03년), 이태리(03년), 호주(04년), 홍콩(05년), 태국(07년) 등 전세계 17여 개에 이르는 법인/지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폴란드, 브라질, 중국 등지에 15개에 이르는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휴맥스는 전체매출 중 수출비중이 90% 내외에 이르는 수출전문 기업으로 전세계 80여 개국에 셋톱박스를 판매하고 있다. 전체 임직원 중 절반 이상이 연구직일 정도로 기술개발에 힘써 왔다.

휴맥스는 한국에서 벤처기업으로 시작하여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IT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기업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이다.

휴맥스 송민정 팀장 인터뷰

〈휴맥스 송민정 팀장〉

Q. 휴맥스의 인재상에 대해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A. 휴맥스는 인재상을 회사의 핵심가치와 일치시켜 바라보고 있으며, 크게 4가지 핵심가치(Integrity, Communication, Commitment, Innovation)를 실현할 수 있는 인원을 휴맥스의 인재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Commitment는 조직성과에 공헌하는 자세와 강한 책임감이 내재되어 있는 가치입니다. 다음 Innovation은 혁신적인 사고와 함께 제품, 기술, 운영 상의 혁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Integrity는 정직, 청렴 등 휴맥스인으로서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Communication은 협업, 열린 자세, 경청, 직언 등과 관련성이 있는 가치로 실제 직위에 관계 없이 성과와 연결되고 옳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전사적으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휴맥스는 4가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휴맥스와 함께 성장하는 인재'를 찾고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Q. 휴맥스에 입사하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직무에서 일을 하게 되는가?

A. 점차 제품의 경쟁력이 소프트웨어와 기획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최근 마케팅과 소프트웨어 직무의 역량향상에 집중하면서도 휴맥스가 속한 제조업 고유의 경쟁력을 위해 하드웨어와 품질, SCM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맥스에 입사한 신입사원은 한 달 동안 신입 입문교육을 받고 난 후 6개월 가량 진행되는 직무교육 프로그램에서 OJT를 받게 됩니다.
휴맥스는 HW, SW, 마케팅, 품질, SCM 5개 트랙으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직무는 3~6개월 가량 기 출시 제품의 부가기능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소프트웨어 구조를 이해하는 동시에 문제해결능력, 협업, 경청 등의 가치를 함양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하드웨어와 품질은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케팅과 기타 일반직군은 6개월 동안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시장조사, 상품제안 등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개월 차에 팔로우쉽 교육을 받은 후 1년 차에 Self Leadership Training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는데 SLT프로그램은 휴맥스 고유의 문화로1년 간 회사생활에 대한 회고와 함께 자신의 인생에 대한 Key Agenda 세팅을 통해 정신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자아성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Q. 휴맥스 신입사원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A. 휴맥스 신입사원 채용프로세스는 개발(R&D)직군과 일반직군으로 나누어지며 개발직군 프로세스는 서류전형 –〉 인적성검사 –〉 직무테스트 –〉 실무면접(팀장급 진행) –〉 임원면접 –〉 채용신체검사 –〉 입사 순입니다. 인적성검사는 인성 및 직무능력을 검사하여 해당 직무에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고 직무테스트는 전공에 대한 기초 지식을 테스트하는데 SW 및 HW 직무 지원자를 대상으로만 진행합니다. 다음 실무면접에서는 기술적인 직무적성을, 임원면접에서는 휴맥스 핵심가치 및 인성에 주안점을 두고 면접이 진행됩니다.

Q. 2014년 하반기와 2015년을 포함한 앞으로의 채용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준다면?

A. 휴맥스는 보통 매년 20~30여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신입공채를 진행합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는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계획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여 2014년 1월 44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올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SW 및 HW개발, 기구개발, 품질, 경영지원, 마케팅, SCM 등 전 직군에 걸쳐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 기업 내/외부환경이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2014년도에는 채용인원이 예년 수준보다는 소폭 감소된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서류, 면접 등 채용전형에서 지원자에게 팁을 준다면?(신입사원 채용 시 휴맥스에서 갖고 있는 주안점에 대해 설명한다면?

A. 휴맥스는 직무별로 공채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지원한 직무에 관련된 경험을 이력서와 면접에서 잘 설명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휴맥스 핵심가치 (ICCI)에 대해 잘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사례를 준비하는 것도 한가지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면접에서는 무엇보다 직무전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본인 전공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했던 노력을 어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원면접에서는 회사에 대한 스터디 등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해 휴맥스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제안, 질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가지 임원면접에서의 면접관과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독서를 통해 다양한 상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공학교육인증이수자를 채용 시 우대하고 있는데, 이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A. 휴맥스가 속한 전자전기컴퓨터 분야는 R&D 특성상 전공 기초지식이 중요합니다. 휴맥스 내부적으로 공학교육인증이수자는 전공 기초지식이 뛰어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학교육인증을 이수했다는 것은 기업이 요구하는 관련지식에 대해 공인된 기관에서 1차적으로 검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공학교육인증이수자를 서류전형에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전기컴퓨터 분야는 R&D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전공 기초지식을 갖춘 공학교육인증이수자는 휴맥스에 있어 중요한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공학교육인증이수자에 대한 내부 평가는 어떠한가? (업무수행능력, 조직 내 활동 등)

A. 공학교육인증이수자를 서류전형에서 우대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하반기부터입니다. 따라서 공학교육인증이수자의 실무능력에 대한 내부검증은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휴맥스 내부에서 공학교육인증이수자는 무엇보다 전공 기초지식이 뛰어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학교육인증이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류전형뿐만 아니라 다른 채용 프로세스에서도 우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 공학교육인증이수학생을 포함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조언을 한다면?

A. 무엇보다 대학 초년 시절부터 본인 전공에 대한 충분한 지식습득이 필요합니다. 타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휴맥스 내부에서도 성적증명서 상의 이수과목 등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때문에 단순한 스펙 쌓기 보다는 전공과목 이수 및 동아리 활동, 프로젝트, 공모전 참여 등 전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본인과 맞는 직무가 있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 그리고 본인의 적성과 성향에 맞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미래에 더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맞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가능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멘토와의 충분한 교류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경제]

[김효석 대표 Q&A] 면접 스피치, 취업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KBS의 대표적인 장수프로그램인 아침마당 꽃중년 편에 설득의 달인 김효석대표가 출연했다. 김효석 대표는 보험설계사, 아나운서, 쇼호스트 등의 다양한 직업들을 거쳐 현재는 대한민국 명강사 협회 소속 명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인을 양성하는 아카데미인 김효석 아카데미의 대표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방송인들을 배출해 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방송인을 양성하는 교육방법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스피치교육에 접목시켜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라면 대학교 진학은 물론 취업을 위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면접에 대한 압박이다. 고등학교 때 죽어라고 공부를 해서 높은 점수로 좋은 대학에 지원했으나 면접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해 쓴맛을 봤던 학생들도 많았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생활을 마치고 나면 직업을 갖기 위해 취업전쟁을 피해갈수 없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른바 대기업이나 복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한 번 더 취업면접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게 우리 내 취업 준비생의 상황이다.

면접에서 낙방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연단공포로 인한 긴장감이 큰 이유를 차지한다. 보통 사람들은 무대 앞에 서거나 사람들 앞에 나서면 긴장을 하고 자신감을 잃는다. 그로인해 눈빛이 흔들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

이런 행동이나 버릇들을 해결해 주기위해 김효석 대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스피치 교육에 뛰어 들었다. 방송인들을 교육하는 방식을 일반인들을 위한 스피치에 접목시킨 김효석아카데미의 신개념 '나우스피치' 가 바로 그것이다.

카메라 앞에서 떨지 않고 이야기를 잘할 수 있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게 된다. 특히 쇼호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여를 생방송으로 이끌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순발력과 재치 있는 스피치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쇼호스트를 양성하는 교육방식이 기본적으로 녹아 있어 일반인들도 교육을 통해 순발력과 재치 있는 스피치가 가능케 된다. 게다가 훈련을 통해 따뜻하고 좋은 목소리를 만들 수 있어 이것 또한 취업이나 입시 면접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한편 김효석 대표는 "앞으로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입시를 앞둔 사람들을 위해 일반인 스피치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피치에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저 없이 김효석 아카데미의 문을 두드려라" 라고 말하며 스피치에 목마른 일반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한국경제 기사 인용〉

[위키트리]

LG 계열사 인사담당자가 밝힌 '하반기 공채 준비 노하우'

LG유플러스_양무열 채용팀장

Q.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인사담당자의 눈에 띌 수 있을까요?

채용 시장이 좁아지고 입사가 힘들어졌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디든 붙고 보자'며 묻지마식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소서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뛰어난 사람인데, 가진 역량과는 전혀 다른 곳을 지원하다 보니 경쟁력이 없어 보이고 대부분 불합격 처리가 되고 말죠.

아직은 경험이 부족할 테니 막연히 이것저것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성향과 강점을 냉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숫자 감각이 좋은지, 관계 형성을 잘하는지, 또는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그리고 분석력이 좋은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고 이런 특질과 잘 맞는 직무를 찾아서 어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가 내가 평생 업으로 삼을 만한 일인지 고민하고 그에 대한 고민을 자기소개서에 녹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Q. 수많은 자소서 중에서도 어떤 것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평가자의 눈높이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평가하는 사람마다 선호하는 항목들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제 경우로 한정해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우리 회사에 또는 지원 직무에 왜 지원했는지 그 이유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회사든, 일이든 이유가 분명해서 납득이 가는 사람이 좋습니다. 이외에는 직무를 위해 준비한 경험, 대회 활동, 전문 지식 등이 얼마나 있는지를 봅니다.

Q. 스펙이 좋아도 호감이 가지 않는 지원자는 어떤 유형인가요?

음... 이런 친구들이죠. 일은 분명히 잘할 것 같은데, 이 회사에 정말 기여하고 이곳에서 자신이 성장하겠다는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기준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회사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지가 첫 번째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많이 알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것에 기반해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입사 후 본인의 목표 등에 대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원자의 열정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LG화학_신정원 인재확보팀장

Q. 이공계 전공생들과 인문, 상경 계열 전공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면접 팁이 있을까요?

2년 전 면접의 어떤 여학생이 기억나네요. B2B 영업 문화는 아주 터프합니다. 그 여학생은 석유 화학 쪽에 지원한 경영대 학생이었는데 자소서에 제품 세 가지를 언급했었죠. 마침 해당 사업부장님이 면접 위원으로 계셨고 여러 질문이 오갔습니다. 보통 면접 때 '홈페이지에서 카피해왔겠지'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 여학생은 대답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했습니다. 이공계 학생들도 관련 수업을 듣지 않으면 제품에 대해 파악하기 힘든데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합격했죠.

꼭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다고 다들 열정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몇 천 번씩 면접을 보게 되면 그 말만으론 믿기 힘듭니다. 전공에 상관없이 본인이 강조하는 '회사에 대한 관심'이 팩트(fact)로 보여야 합니다. 부풀린 미사여구보다 진솔하고 소박한 팩트가 중요합니다.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는 전공 지식과 자기만의 플러스알파가 필요합니다. 영업 마케팅을 예로 들면 수출업에 필요한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나 중남미어, 러시아어 등의 역량이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꼭 외국어가 아니더라도 업무에 필요한 또 다른 장점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경험이 없다고 해서 기업에 도전하지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편견은 버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항상 채용 설명회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공 지식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입사하면 분명히 활용합니다. 하다못해 조직 내 상사나 동료들과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이용합니다.

Q. 성공적인 면접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소화한 내용을 자소서에 잘 녹이고 그것을 간결,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면접이 성공적인 면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회사는 절대로 말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받자마자 1초 만에 대답하는 것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역량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Q.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다면요?

회사가 생각하는 인재상이 추상적이고 거창하지만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거창하고 추상적으로만 너무 생각하면 '젊음과 패기를 보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떻게 보여야 하지?' 하는 고민만 늘어가거든요. 사회인으로서 지녀야 할 책임감, 기본기와 됨됨이를 갖추면 그것이 바로 인재상이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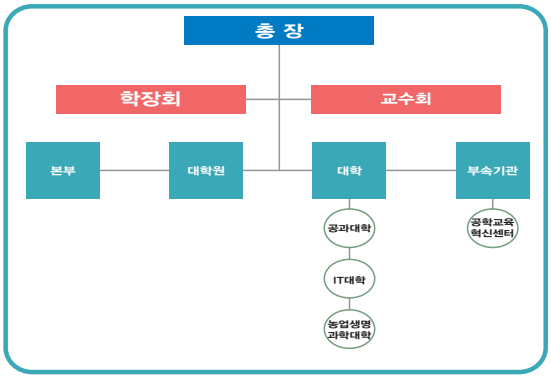
〈위키트리 기사 인용〉

경북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 목적

▶ 경북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KNU)는 공학교육의 지속적 개선에 필요한 도구의 개발 및 지원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엔지니어를 양성함으로써 산업계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제시한 공학교육인증의 기준에 충실한 공학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지원시스템 구축, 교육행사 준비 등의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직도



연혁

2004년
2004.04 공학 교육인증제 추진 소위원 구성
공학교육인증 설명회 참석
2004.07 공학교육인증 추진 위원회로 변경
2004.11 공학교육인증 세미나 개최(고려대 운우영 교수, 광운대 김복기 교수)

2005년
2005.06 공과대학 11개, 전자전기 컴퓨터학부 3개 프로그램 공학교육인증 신청
2005.10 종합설계 또는 창의설계과목을 편성

2006년
2006.01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학칙 개정
공학교육센터(KEEC) 개소 및 규정 제정
2006.02 공학교육혁신 세미나 참석(서울대학교-센터장 등) 14개 프로그램 자체보고서 작성 및 제출
2006.03 PD간담회 참석(연세대학교-각 프로그램 PD)
학습성과 워크샵 참석(고려대학교-교육평가개발실장) 및 보고회 개최
2006.04 제 1회 공학교육인증 워크샵 개최
2006.05 2006공학교육인증 방문평가(14개 프로그램, 31인의 평가단)
2007 공학인증 설명회 참석(연세대학교-생물산업기계 공학과 교수 등)

2007년
2007.01 경북대학교 14개 프로그램 공학인증 "예비인증" 받음
2007.06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산업 선정
2007.07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산업 협약
공학교육혁신 거점센터 지원사업 선정
2007.10 공학교육혁신 거점센터 지원산업 협약
공학교육혁신 센터로 직제 변경
공학교육혁신 거점 센터 개소식

2008년
2008.04 2008 공학교육인증 방문 평가(14개 프로그램 중간 방문 평가, 2개 프로그램 신규 방문 평가)

2009년
2009.01 경북대학교 16개 프로그램 공학교육인증 "예비인증" 받음
2009.04 공과대학 및 전자전기 컴퓨터학부 10개 프로그램 인증 프로그램으로 전환

2010년
2010.03 공과대학 컴퓨터공학 프로그램 및 전자전기 컴퓨터학부 컴퓨터 과학 프로그램이 IT 대학 컴퓨터 공학 프로그램으로 통합
2010.04 공과대학 및 농업생명과학대학 6개 프로그램 인증 프로그램으로 전환
2010 공학 교육인증 방문 평가
2010.12 공과대학 및 IT대학 13개 프로그램 인증기준 변경(KEC2000→KEC2005)

2011년
2011.01 IT대학 컴퓨터공학 프로그램 인증기준 변경(KEC2005→KCC2010)

2012년
2012.02 수강 신청시 전산프로그램상에서 이수체계 준수여부 확인 후 수강지도
2012.04 정기 방문평가(15개 프로그램)

2013년
2013.01 2012년 인증평가 결과(중간방문Ⅳ) 통보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인터뷰

〈 박철우 공학교육혁신센터장 〉

Q.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인가?

A. 우수한 공학교육 및 자질향상을 통하여 국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글로벌 공학인의 양성과 국제적 수준의 등가성을 가진 공학교육의 완성을 통해 학생들의 자신감 확보와 공학교육인증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함께 모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적으로 공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의 이수 과정에서는 몇몇 가지 측면에서 교수 및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홍보를 통하여 기업에서도 점차 이러한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이수한 졸업생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가 매우 좋게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힘들지만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동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행하고 있는 노력이 있다면 무엇인가?

A. 경북대학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공학교육인증에 노력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부)의 소속 학생은 당해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만 졸업이 인정되는 단일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우수 사례로 지정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2016년 이후부터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내의 모든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인증제도를 운영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정책을 수정 확립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지원체제로서 경북대학교 공학교육인증지원시스템(http://abeek.knu.ac.kr/Keess/)을 운영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의 소통과 자료 공유의 장을 지원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이고 체계적 프로그램 지원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매년 지원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사항을 수시로 파악 점검하여 시스템을 보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활용하고 있는 교수, 조교 및 학생들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공학교육인증제도 시행과 관련된 향후 추진 계획이 있다면?

A. 경북대학교에서는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중심으로 15개의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단일인증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학생 중심의 창의적 교육 지원을 위해 2015년도에는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Q. 공학교육인증제도 시행 후 달라진 변화 혹은 효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A. 앞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효율적 지원체제로서 공학교육인증지원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의 소통과 자료 공유의 장을 지원함으로써 매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시스템을 지원하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상에서의 소통의 경험을 통해 보다 교수와 학생의 교류가 원활해지고 오프라인의 상담도 매우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수체계와 같은 자칫 무관심해 왔던 사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국제적 인증 프로그램에의 참여에 대한 학생들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점차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공학교육인증제도 시행 후 교수들의 교육에 임하는 전반적인 자세의 변화는 어떠한가?

A. 초기에는 다소 행재정적 변화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공학교육인증 제도의 필요성과 우수한 교육효과가 점차 가시화되어지면서 최근에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전공교과목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인증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교수들이 느끼는 부담 혹은 어려움이 있다면?

A. 현재까지는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일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도 노력하여 현재 많은 부분이 조금씩 개선되어지고 있지만 2~3년 주기의 방문평가와 결과에 대한 대응 및 환류 작업 등으로 인해 장기간 노력이 투자되어져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Q.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대학본부의 자체 평가는 어떠한가?

A. 경북대학교에서는 총장 직속기관으로 소속된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대학본부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행재정적 부분의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우수한 공학부문 전공교과목 운영에 대하여 모범적 사례로 인지하고 있으며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학교육인증평가, 유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높은 재정적 부담을 대학 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만으로 충당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정부차원의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망되는 실정입니다.

Q. 인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재학생/졸업생의 반응은 어떠한가?

A.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향후 진로 및 취업 등에 고민이 많기 때문에 공학인증제도의 취업시 가산점 및 혜택 등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점차로 많은 기업들이 공학교육인증 졸업생들에게 혜택을 부여해주고 있음을 적극 홍보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폭넓은 홍보와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점차 확대되어져 나간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내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시행이 효과적으로 잘 정착화 되어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졸업생의 경우에도 기업체의 채용설명회 시 인사부서의 기업인들을 통해서 파악해 본 바 경북대학교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이수한 졸업생들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졸업생들의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자부심과 효율적인 산업활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원 및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천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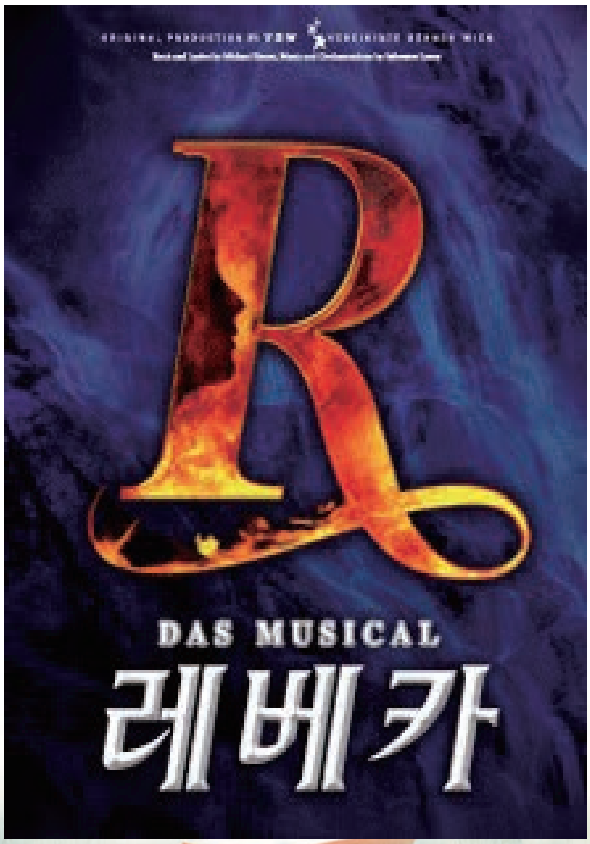
덤앤더머2

1994년 1편이 개봉된 지 20년 만에 덤앤더머2가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1편에서 죽마고우사이로 출연하여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던 짐 캐리와 제프 다니엘스가
2편에서도 찰떡궁합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헐리우드식 코미디영화의 진수를 맛보고 싶은 분께서는
덤앤더머2를 놓치지 마시기를~

● **2014년 11월 개봉**

〈출처 : 네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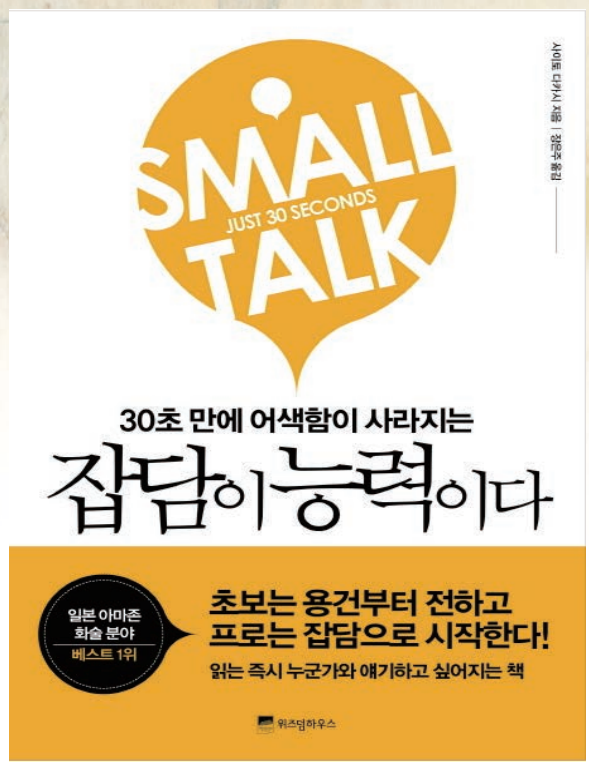
추천 뮤지컬

레베카

강렬한 음악과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신비로운 무대 연출로 2013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레베카 신드롬'을 일으켰던 뮤지컬 '레베카'가 돌아온다.
뮤지컬 '레베카'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은 뮤지컬 '엘리자벳', '모차르트!' 의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와 극작가 미하엘 쿤체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으로 1938년 출간된 대프니 듀 모리에(Daphne du Maurier)가 쓴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스릴러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동명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

● **2014년 9월 6일 ~ 2014년 11월 9일,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출처: 공연의 모든 것-플레이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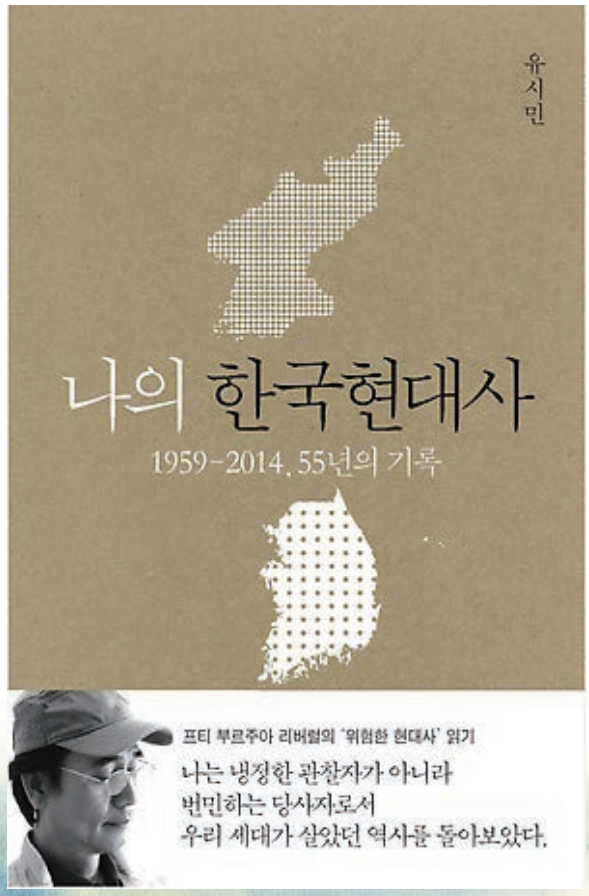
이 달의 도서
'잡담이 능력이다'

30초만에 어색함이 사라지는

우리는 보통 '잡담' 이라고 하면 쓸데없이 주고받는 말이거나 시간을 때우기 위해 잠시 상대와 이야기하는 정도라고 생각한다. 과연 잡담이 이처럼 쓸데없는 말일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다름 아닌 '잡담' 에 주목하였다. 모든 커뮤니케이션, 모든 관계는 '잡담' 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단 30초의 대수롭지 않은 잡담 속에는 그 사람의 인간성과 사회성이 응축되어 있다. 따라서 잠깐의 잡담을 통해 상대의 속마음을 간파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할 수도 있다. 잡담은 단순한 대화 능력이 아닌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것이다. 어색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상대와의 거리를 좁혀주는 능력인 '잡담력' 을 익히면 일도 인간관계도 술술 풀리게 마련이다.

〈출처: 네이버 책정보〉



'나의 한국현대사'

1959–2014, 55년의 기록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부정 선거와 4.19혁명으로 인한 하야, 곧이어 일어난 5.16 군사쿠데타와 18년의 군사독재, 산업화를 이루기 위한 경제성장, 전두환 정권과 5.18 광주민중항쟁, 1970년대 반독재투쟁, 1980년대 민주화투쟁,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 등 굵직한 정치적 이슈와 함께 일상사, 문화사 등 주요 역사적 사실들이 담겨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선별한 보건, 위생문제와 복지문제에 대한 견해, 텔레비전이 처음 등장했던 일화, 기생충문제와 채변봉투, 계엄군에 체포된 이야기 등 어릴적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버무려 우리 세대가 살았던 역사를 돌아보았다.

〈출처: 네이버 책정보〉

1화 복학생 한공학, 아름이에게 꽂히다!

ABeaK 한국공학교육인증원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Monthly Planner

9 Sep 2014

Sunday 일	Monday 월	Tuesday 화	Wednesday 수	Thursday 목	Friday 금	Saturday 토
	1	2	3	4	5	6
7	8 추석	9	10	11	12	13 • 2014년도 제16차 운영위원회
14	15	16	17	18	19	20 • 대학연도 조율위원회
21	22 • 2015년도 인증평가 신청마감	23	24	25	26	27 • 2014년도 제17차 운영위원회
28	29	30				

• IFIP General Assembly

• 2014공학교육학술대회

1 월
2 화
3 수
4 목
5 금
6 토
7 일
8 월 추석
9 화
10 수
11 목
12 금 • IFIP General Assembly
13 토 • 2014년도 제16차 운영위원회
14 일
15 월
16 화
17 수
18 목
19 금
20 토 • 대학연도조율위원회
21 일
22 월 • 2015년도 인증평가 신청마감
23 화
24 수
25 목 • 2014공학교육학술대회
26 금
27 토
28 일
29 월
30 화

10 Oct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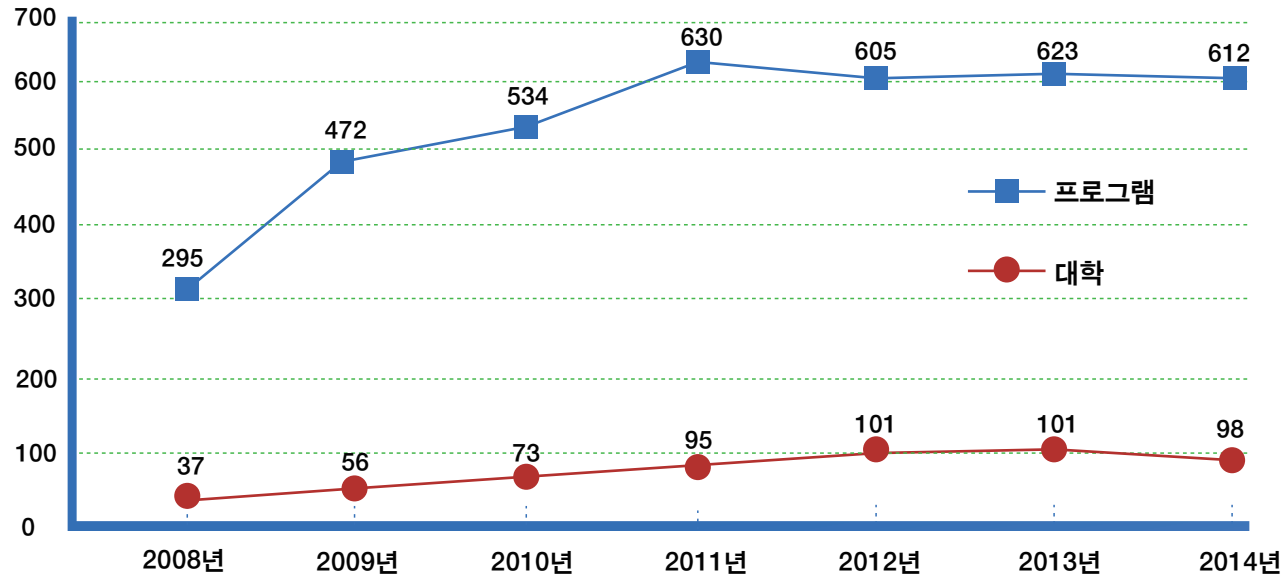
Sunday 일	Monday 월	Tuesday 화	Wednesday 수	Thursday 목	Friday 금	Saturday 토
			1	2	3	4
5	6	7	8	9	10	11 • 2014년도 18차 운영위원회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2014년도 19차 운영위원회
26	27	28	29	30	31	

• 인증평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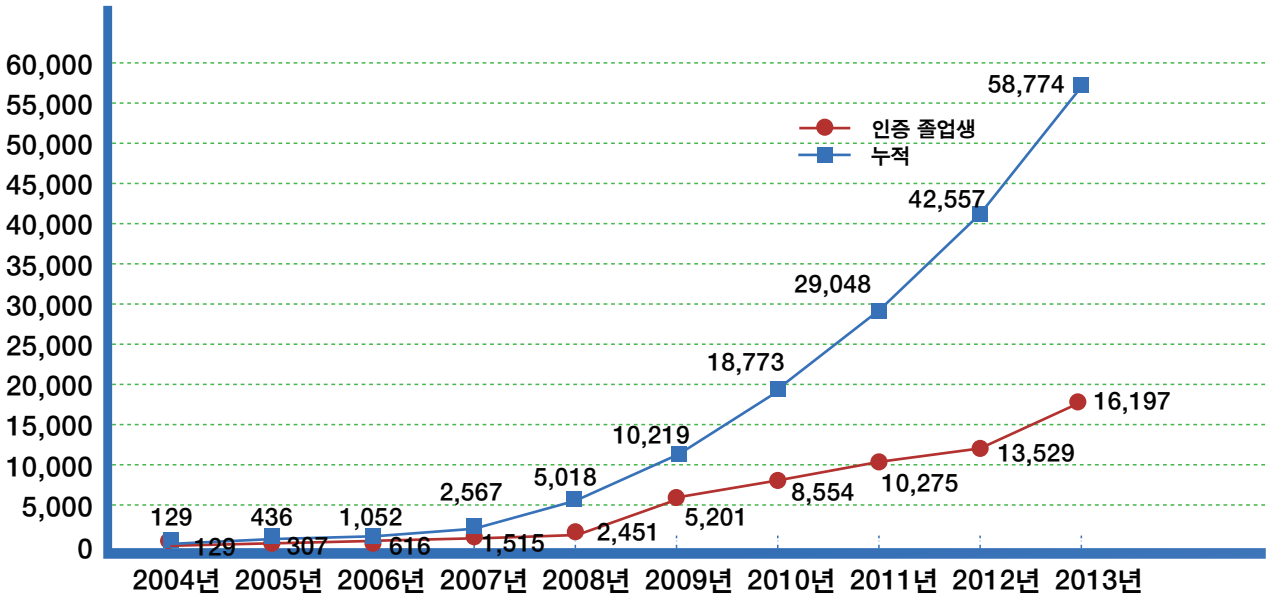
1 수
2 목
3 금
4 토
5 일
6 월
7 화
8 수
9 목
10 금
11 토 • 2014년도제18차 운영위원회
12 일
13 월
14 화
15 수
16 목 • 제42회 공학교육인증포럼
17 금 • 인증평의회
18 토
19 일
20 월
21 화
22 수
23 목
24 금
25 토 • 2014년도제19차 운영위원회
26 일
27 월
28 화
29 수
30 목
31 금

공학교육인증 현황

● 인증대학 및 프로그램 현황 (2014년 5월 기준)



● 인증 졸업생 현황 (2014년 1월 기준)



국내혜택

개시연도	기업명	인증 졸업생 혜택
2005년	AhnLab	서류전형 우대
2006년	삼성전자	면접전형 10% 가산점 부여
2007년	Ericsson-LG	서류전형 10% 가산점 부여
	삼성그룹*	면접전형 10% 가산점 부여
2008년	NHN	서류전형 우대
2009년	KT	서류전형 우대
	SK 커뮤니케이션즈	서류전형 우대
2010년	벤쳐기업협회	공학인증제도 홍보 및 확산
	온세텔레콤	서류전형 우대(이력서 표기)
	서울9호선 운영(지하철 9호선)	서류전형 우대
	인쿠루트	인증이수여부 입사지원서 표기
	비트컴퓨터	면접전형 10% 가상점 부여
	서울반도체 / 서울옵토디바이스	서류전형 우대
	드림위즈	서류전형 10% 가산점 부여
	몬티스타텔레콤	서류전형 10% 가산점 부여
	인성정보 및 계열사*	서류전형 10% 가산점 부여
	신세계건설 / 신세계아이앤씨	서류전형 가산점 부여
	SK텔레콤	서류전형 우대
	가온미디어(주)	서류전형 우대
	(주)윈스테크넷	서류전형 우대
	삼성SNS	서류전형 5% 가산점 부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체 평가위원 추천
		공학인증제도 홍보 및 확산
	전국경제인연합회	공학인증제도 홍보 및 확산
2011년	STX그룹*	서류전형 우대 (입사지원서 표기)
	OCI	인증이수 여부 (입사지원서 표기)
	중소기업중앙회	공학인증제도 홍보 및 확산
2012년	SK C&C	서류전형 우대 (입사지원서 표기)
	주성엔지니어링	서류전형 우대 (입사지원서 표기)
	휴맥스	서류전형 우대 (입사지원서 표기)
	콤텍시스템	서류전형 우대 (입사지원서 표기)
	콤텍정보통신	서류전형 우대 (입사지원서 표기)
	다산네트웍스	서류전형 우대 (입사지원서 표기)
	핸디소프트	서류전형 우대 (입사지원서 표기)
	퓨처시스템	서류전형 우대 (입사지원서 표기)
	옴니시스템	서류전형 우대 (입사지원서 표기)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플랜전문가과정 지원자 중 공학인증수료자 가산부여
	나모인터렉티브	서류전형 우대 (입사지원서 표기)
2013년	IT여성기업인협회	공학인증제도 홍보 및 확산
	LG전자	서류전형 우대 (입사지원서 표기)
	SK하이닉스	서류전형 우대 (입사지원서 표기)
	동국제강그룹*	서류전형 우대 (입사지원서 표기)
	현대제철	입사지원서 자격증 표시란 공학교육인증이수여부 체크
	현대중공업그룹*	서류전형 가산점부여
	캐리어	서류전형 우대 (입사지원서 표기)
	오텍	서류전형 우대 (입사지원서 표기)
	한국터치스크린	서류전형 우대 (입사지원서 표기)
	현대모비스	입사지원서 표기
	동부제철	서류전형 가산점부여
2014년	다우기술 및 계열사*	서류전형 우대 (입사지원서 표기)
	한글과컴퓨터	입사지원서 표기
	만도	서류전형 우대 (입사지원서 표기)
	한솔그룹*	서류전형 우대 (입사지원서 표기)
	동부대우전자	서류전형 우대 (입사지원서 표기)
	동진쎄미켐	서류전형 우대
	SK브로드밴드	서류전형 우대 (입사지원서 표기)
	대덕전자 계열사*	서류전형 우대 (입사지원서 표기)
	LS그룹*	서류전형 우대

비 고

*** 삼성그룹 :**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생명
삼성석유화학
삼성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정밀화학
삼성중공업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테크윈
삼성토탈
삼성화재
삼성BP화학
삼성LED
삼성SD
삼성SDS
제일모직
SB리모티브

*** 현대중공업그룹 :**

현대중공업
현대정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종합상사
무주풍력발전
창죽풍력발전
태백풍력발전(주)
현대자원개발
미포엔지니어링
현대오일터미널
현대쉘베이스오일
현대중공업스포츠
힘스
코마스
호텔현대
현대아반시스
신려관광
현대커민스엔진유한회사
하이투자증권
현대기술투자
현대선물(주)
현대코스모

*** 한솔그룹 :**

한솔제지㈜
한솔아트원제지㈜
한솔페이퍼텍㈜
한솔홈데코㈜
㈜한솔케미칼
㈜한솔씨앤피
한솔개발㈜
한솔더리저브㈜
한솔테크닉스㈜
한솔라이팅㈜
한솔씨에스엔㈜
한솔이엠이㈜
문경에스코㈜
울산에스코㈜
한솔피엔에스㈜
한솔인티큐브㈜
㈜솔라시아
한솔씨앤엠㈜
한솔신텍㈜
㈜한솔넥스지
㈜다넷정보기술

*** 인성정보 계열사 :**

인성디지탈
엔와이티지
벤치비
엠케이헬스

*** STX그룹 :**

STX
STX팬오션
STX조선해양
STX엔진
STX중공업
STX메탈
STX에너지
STX건설
STX마린서비스
STX솔라
STX대련
STX OSV

*** 동국제강그룹 :**

동국제강
유니온스틸
DK유아이엘
DK유엔씨

*** 다우기술 계열사 :**

다우데이타
다우인큐브
한국정보인증
키움닷컴
사람인

*** 대덕전자 계열사 :**

대덕전자
대덕GDS
임베라대덕
영테크
아페리오

*** LS그룹 :**

(주)LS
LS전선
LS산전
LS-Nikko동제련
LS엠트론
가온전선
E1
예스코
LS글로벌
대성전기

국제혜택

공인원은 2007년 6월 공학교육인증 관련 국제협의체인 워싱턴어코드(Washington Accord) 정회원에 가입함에 따라 ABEEK 인증 졸업생은 정회원국 사이에서 법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회원국의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됨

국가별 로고	국가명	국제적 혜택
ABET	미국 (ABET : Accres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 기술사 등록 혹은 자격증 발급과 관련해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이 없고 각각의 주에서 등록 및 자격증 발급 관련 정책과 절차를 마련, 따라서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이동할 시, 기술사로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그 주의 정책을 따라 추가적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함 – 주 위원회(State Board)는 ABET의 인증졸업생 혹은 교육요건과 현장경험이 인정할만한 개인은 자격증 발급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음 – 일부 주 위원회에서는 교육자격을 제3자에게 평가 받도록 하기도 하나, 미국내 대부분의 주위원회에서 동등성을 인정함
ABeeK	한국 (ABEEK : Accres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 간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러시아 (AEER : Association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Russia)	–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 간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말레이시아 (IEET : Institute of Engineering Education Malaysia)	– 말레이시아 인증기구 졸업생과 동등하게 대우
ECSA	남아프리카공화국 (ECSA : Engineering Council of South Africa)	– 기술사 후보(Candidate Engineers)가 되기 위한 교육요건을 만족한다고 인정함 (한국 (ABEEK)은 2007년부터 인정)
Engineering Council accredited degree	영국 (ECUK : Engineering Council UK)	– 공인기술사(CEng) 등록 시, 영국의 인증졸업생과 동등하게 인정을 받음
ENGINEERS AUSTRALIA	호주 (EA : Engineers Australia)	–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 수준으로 EA의 정회원, 기술사가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공인기술사 혹은 호주기술사 등록(National Professional Engineer Register)에 필요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 – EA의 정회원 및 기술사 등록 관련 혜택과 더블어 기술이민 시, 서류 제출 면제
engineerscanada	캐나다 (EC : Engineers Canada)	– Licensing body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캐나다 인증기구의 졸업생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권장 – 학력요건 평가 시 시험 면제 ※ 단, 캐나다 자격증 취득시 아래요건 충족 1) 캐나다에서의 1년을 포함해 3~4년 정도의 엔지니어링 경험이 있어야 함 2) 기술사 시험(professional practice)에서 법과 윤리 과목을 통과해야 함 3) 영어 능통(퀘벡은 불어, New Brunswick은 불어 혹은 영어)
ENGINEERS IRELAND	아일랜드 (EI : Engineers Ireland)	– WA 회원기구의 인증결정을 존중하고, 아일랜드의 공인기술(Chartered Engineer) 자격을 위한 교육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
IEET	대만 (IEET : Institute of Engineering Education Taiwan)	–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 간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싱가포르 (IES : the Institution of Engineers Singapore)	– 싱가포르 기술사회에서 워싱턴어코드 회원기구의 인증프로그램 졸업생이 싱가포르 내에서 PE(Professional Engineer)가 되기 위한 학력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공식 인정하도록 정부와 협의 중
IESL	스리랑카 (IES : the Institution of Engineers Sri Lanka)	–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 간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IPENZ ENGINEERS NEW ZEALAND	뉴질랜드 (IPENZ : Institution of Professional Engineers New Zealand)	– 뉴질랜드 인증기구 졸업생과 동등하게 대우 – IPENZ의 기술사가(Professional Membership of IPENZ)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함
JABEE	일본 (JABEE : Japan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 일본에서 석 · 박사 과정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하다면 석 · 박사 과정을 받기에 충분한 학부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추천서를 JABEE 명의로 발급 –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면 JABEE 명의로 추천서를 발급
MÜDEK	터키 (IEET : Institute of Engineering Education Turkey)	–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 간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NBA NATIONAL BOARD OF ACCREDITATION	인도 (NBA: National Board of Accreditation of All India Council for Technical Education)	–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 간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홍콩 (HKIE : The HongKong Institution of Engineers)	– HKIE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들이(Graduate/ Corporate Member of the HKIE) 갖추고 있는 교육요건과 동등한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함

ABEEK 한국공학교육인증원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 주소 :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길 21 파라다이스벤처빌딩 701호
| TEL : 02-6261-3001 | FAX : 02-6261-3003
| e-mail : abeek@abeek.or.kr | http://abeek.or.kr | http://m.abeek.or.kr

한국공학교육인증원 Newsletter Vol. 26
| 발행일 : 2014년 9월 17일 | 발행처 : 한국공학교육인증원
| 발행인 : 김영길 | 편집인 : 박광수